금속노조통신 028호

발행일 2024년 6월 24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총파업 투쟁 만들자”

6월 19일 경기지부 투쟁선포식 … 타임오프·회계공시 분쇄 결의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6월 19일 오후 2시 경기 평택시 현곡 일반산업단지 한국호야전자,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타임오프 분쇄! 노동탄압 박살! 2024 임단투 승리! 경기지부 투쟁선포식’을 벌였다.

노조 경기지부 한국호야전자지회는 해를 넘기는 교섭 끝에 올해 2월 고용안정 합의를 쟁취했으나, 사측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자행했다. 경기지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권봉재 한국호야전자지회장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단호히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 회계공시 압박, 타임오프 시정지시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지회는 노동부 주요탄압 대상이다. 양태인 현대모비스평택지회장은 “타임오프 시정지시, 현장 복귀 명령으로 노동조합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선언했다.

최현환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일본 니토덴코 본사 원정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며 “노동탄압을 막아내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지부 1만 조합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엄호한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고은하 노조 부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개정 투쟁 발언으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노조탄압·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세우자는 발언으로 전체 참가자의 투쟁 결의를 높였다.

이규선 노조 경지지부장은 “7월 10일 금속노조의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타임오프, 회계공시제도를 분쇄하자”라며 “2024년 임단협 쟁취 투쟁, 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해나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한국호야전자, 한국니토옵티칼을 둘러싼 펜스에 금속노조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과 띠를 묶으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속이고 기만한 대가를 말레에 보여 줄 것”

부산양산지부, 6월 20일 말레베어에서 지부 임단투 전진대회 열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6월 20일 부산 기장군 장안공단 말레베어에서 ‘부산양산지부 임단투 전진대회’를 벌였다. 2024년 임단투 승리와 말레베어 사측의 일방적인 공장폐쇄 철회를 외쳤다.

조성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10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7월 10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라며 “지부도 이에 맞춰 힘차게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공장폐쇄 철회, 노조안 수용” 말레베어 분회장, 부분회장 단식

조성민 지부장은 “6월 17일 말레베어 임주희 분회장에 이어 18일 서민재 부분회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임주희 동지는 벌써 3번째 단식이다” 라며 “2024년 금속노조답게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윤석열 정권에 이기자. 말레베어분회답게 힘차게 싸워 공장폐쇄 박살 내고 지속 가능한 회사 만들자” 라고 호소했다.

단식 4일 차를 맞은 임주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 말레베어분회장은 “노조동의 없이 공장폐쇄 관련 이전 준비를 하지 않겠다던 본사가 6개 제품을 이전 준비하는 것이 사업장보충교섭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며 “경영진은 노동조합을 거짓말로 속이고 기만했다” 고 울분을 토했다.

임주희 분회장은 “공장폐쇄 철회, 노조안 수용, 본사안 제시, 인사과 상무 퇴출이 많이 깨진 노사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 며 “말레베어분회는 금속노조를 속이고 기만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 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조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전진대회에 참가해 7월 10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말레베어분회 투쟁에 노조 온 역량을 쏟겠다는 결의를 밝혔다.